

瑞 문화재의 보고 山

충남 서산시 운산면과 해미면을 잇는 619번, 647번 지방도에는
천년의 시간이 흐른다. '백제의 미소'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
터, 청벚꽃 피는 개심사, 조선 명종대왕태실, 해미읍성 등
백제, 고려, 조선의 귀한 문화유산이 이 길 따라 펼쳐져 있다.
한 지역의 문화재가 이처럼 다채로울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글 현경숙 · 사진 조보희 기자



조선 명종대왕태실 및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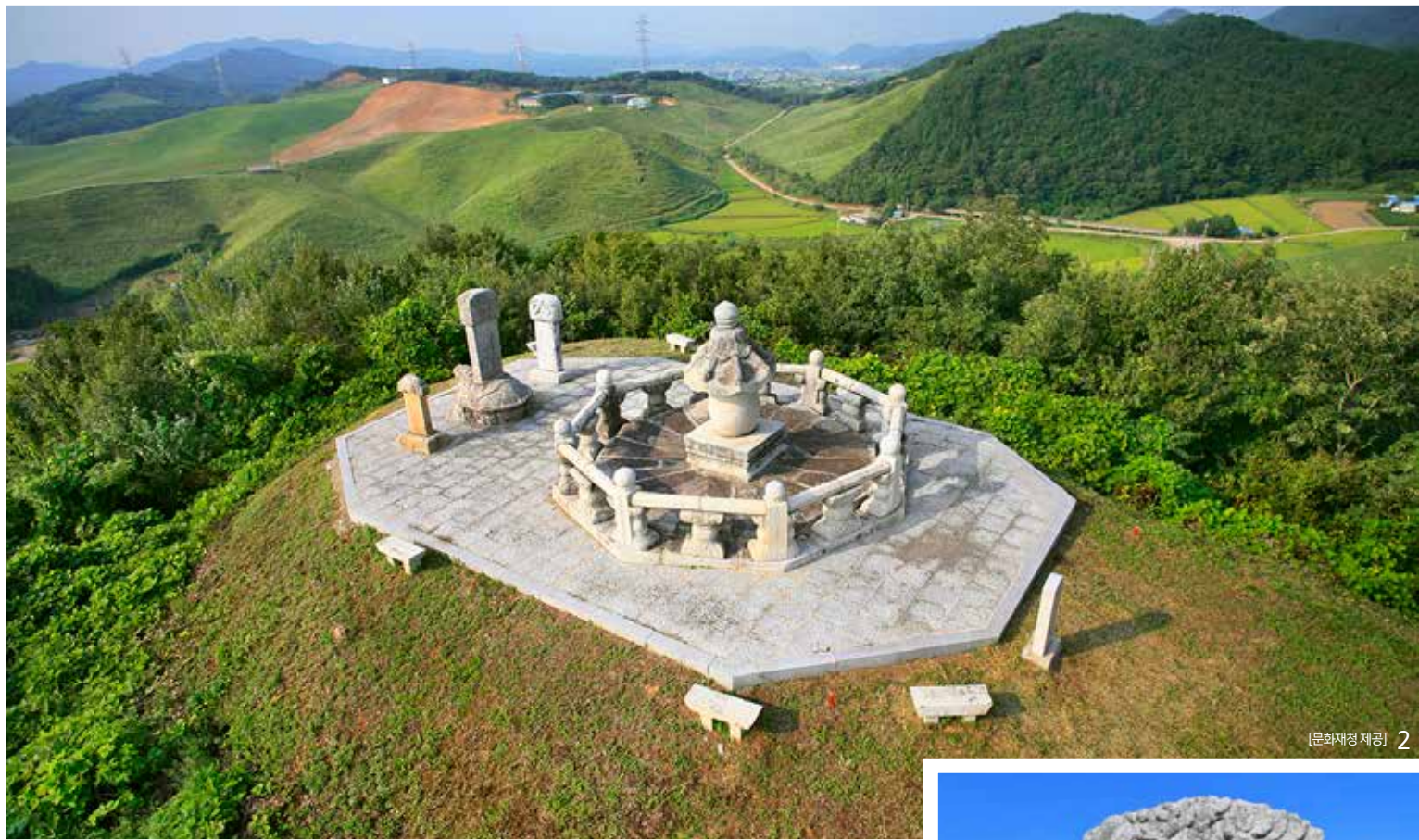
조선왕조 태실은 생명존중 사상을 담았다. 특히 명종태실은 미술사적 가치가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좋아 보물로 지정됐다. 태실 중에서는 유일한 보물이다.

조선 13대 명종대왕(재위 1545~1567) 태실과 비는 2018년 3월 조선 태실 유적 중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됐다. 경상북도 성주군 한개마을에 전국 최대 규모의 세종대왕자 태실이 있지만, 사적으로 지정돼 있을 뿐이다. 태실은 조선왕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를 항아리에 봉안한 뒤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태를 보관한 작은 돌방이다. 조선은 태를 아기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아기의 처음을 소중히 여겼다. 태실 문화에서 생명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감염병 사태가 길어지면서 더 중요해진 생명존중이다.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한다면 방역 방해나 저항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명종 태실이 보물로 지정된 것은 약 500년 전 처음 지어진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원형대로 잘 보존돼 있기 때문이다.

명종 태실과 비석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서산나들목에서 빠져 647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면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에 있다. 우리가 명종 태실을 찾은 날은 오랜 비가 그치고 한반도를 내습한 큰 태풍들 사이에 잠깐 하늘이 맑았던 날이었다. 하늘은 드높고 대기는 '바삭' 소리라도 낼 듯 습기가 가신 아침.



1



【문화재청 제공】 2

1, 2 태봉산 정상에 있는 명종대왕태실 3 3개의 비 중 가운데 서 있는 주상전하태실비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새파란 언덕 초지에 하얀 해오라기 십여 마리가 무심한 듯 느릿느릿 배회하고 있었다. '서산에는 해오라기가 많은가 보다'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려본다. 태실로 오르는 언덕길은 잘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잡초를 짧게 깎아 놓아 발걸음이 자못 상쾌했다. 주차장에서 15분쯤 올랐을까. 김종필 전 총리가 썼다는 명종대왕태실 표지석이 나왔다. 일대에 해오라기가 많은 이유는 곧 알 수 있었다. 태실은 농협 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인 서산한우목장 가까이 있었다. 해오라기는 쇠똥에 서식하는 벌레를 좋아한다.

길 오른쪽 절벽 아래에 목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멀리서 보아도 건강하고 잘생긴 누렁소 200~300마리가 풀을 뜯거나 한가로이 드러누워 있었다. 수백 마리 해오라기들이 소들 위로 떼 지어 날기를 반복했다. 축사에 갇히지 않고 너른 들을 노니는 토박이 소들을 보는 게 얼마 만인가. 달래는 듯, 으르는 듯한 목부들의 물이 소리에 소들이



3



1 방목지를 이동하는 서산한우목장의 한우와 소를 따라다니는 해오라기를 2 푸른 가을하늘과 잘 어울리는 명종대왕 태실

줄줄이 줄을 지어 옆 방목지로 옮겨갔다. 한우 유전자원을 보존, 개량하는 이 사업소가 키우는 소는 약 2천500마리다. 하나같이 건강하고, 잘 생기고, 훌륭한 족보를 가졌다. 그 때문에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몸값 비싼 소가 수도룩하다고 한다.

마침내 명종 태실과 비에 다다랐다. 산이라고 하기엔 작은, 태봉산 정상 한가운데 태실이 있었다. 태실 주변 난간석 바깥에 비가 3개 건립돼 있다. 태실 위는 맑고 푸른 하늘, 아래는 서산 시내다. 태봉산에서 바라보니 서산은 크고 작은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었다. 산들이 만든 원의 중심에 태실이 있는 것 같다. 이른바 '명당'이다.

명종은 중종의 둘째 아들이자, 인종의 동생이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수렴청정을 했던 어머니 문정왕후 사후 선정을 펴려 노력했다. 태실은 반침돌, 태를 넣은 둥근 몸돌, 지붕돌로 이루어져 있다. 3기의 비는 태실이 건립됐던 1538년, 명종 즉위 이듬해인 1546년, 숙종 때인 1711년에 각각 제작됐다. 1546년 세워진 주상전하태실비의 글씨가 오랜 세월 에 훼손되자 숙종 때 다시 제작됐다. 일제는 명종의 태를 넣은 태향아리를 1928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겼다. 이 향아리는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됐고,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조선 왕조 태실의 상당수는 다른 자리로 옮겨졌거나 변형됐다. 관련 기록도 유실된 경우가 많다. 반면 명종 태실은 건립 후 482년 동안 처음 지어진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실록에 관련 기록도 상세히 남아 있다. 학계는 명종 태실이 한국 미술사의 태실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본다.

명종 태실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태봉산은 해발 100m 정도로, 큰 언덕에 가깝다. 사람의 왕래가 잦은 데도 일제가 태향아리를 빼내 옮긴 것 외에, 태실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500년 세월을 견뎌 놀랍다.





정문인 진남문에서 본 해미읍성

잘 보존된 조선 읍성, **해미읍성**

원래 해미읍성은 요새였다. 600년 연륜 탓일까. 지금의 해미(海美) 성곽은 무미건조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건축물로 느껴진다.

해미읍성의 돌 성곽은 600여 년의 시간과 역사를 머금고 있다. 전북 고창읍성, 전남 순천읍성과 함께 ‘조선 3대 읍성’으로 불린다. 그렇지만 성곽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읍성을 꼽으라면 단연 해미읍성이다. 해미 성곽의 돌들에 오랜 세월이 녹아들어서인가. 노르스름한 돌덩이 하나하나가 투명한 가을 햇살을 받아 고색창연하게 빛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 때문인지, 해미성 안에 나들이객은 많지 않았다. 연을 날리는 어린이와 어른, 손을 맞잡은 연인들이 넓은 잔디광장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유럽의 어느 공원 못지않은, 그림 같은 모습이다. 잔디는 보기 드물게 촉촉하고 건강했다. 잔디는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상식인 서울과 달리 서산 시민들은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놀이와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잔디밭 자리는 옛날 병사 훈련장이었다. 이 성은 조선 전기 충청병마절도사의 병영성이었다. 충청병영은 원래 덕산에 있었으나 왜구를 막기 위해 해안과 가까운 해미로 이설했다. 해미읍성은 태종 17년(1417)부터 세종 3년(1421) 사이에 축조됐다. 읍성은 지방 관청과 주민이 사는 곳을 둘러싼 성이다. 해미는 일반 행정기능의 읍성이 아닌 군사용이었다. 성이 잘 보존된 것은 처음부터 잘 지어졌고, 성을 둘러싼 큰 전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견고한 축성에는 ‘공사 책임제’의 영향이 컸다. 해미성 축조 부역은 부근 고을에 할당됐는데, 각 고을은 책임 공사의 표시로 성돌에 고을 이름을 새겼다.



1



2

지금도 성 외벽을 꼼꼼히 살펴보면 흐릿해지긴 했으나 '公州'(공주) '淸州'(청주) 등의 글자가 새겨진 성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돌을 각자석(刻字石)이라고 한다. 해미성은 성 안 쪽을 향해 4~5단 정도의 계단식 석축을 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경사지게 한 뒤 내벽을 만들었다. 이 벽에 의지해 수직이 되도록 외벽을 쌓았다.

해미성은 충무공 이순신이 복무했던 곳이다. 1576년(선조 9)에 무과에 급제한 이순신은 권관과 훈련원 봉사를 거쳐 세 번째 관직으로 1579년 충청병마절도사 군관으로 부임해 10개월간 이곳에서 근무했다.

해미성은 천주교 박해와 순교의 아픔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천주교 박해는 병인양요(1866)와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묘를 도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1868)을 계기로 심해졌다. 군사 중심지였던 해미읍성은 충청지역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여 처형했는데 그 수가 1천명 이상이었다고 전한다. 읍성 안에 옥사가 재현돼 있다. 옥사 앞에는 신자들의 손발과 머리채를 매달아 고문하던 회화나무가 서 있다. 수령 300년의 이 나무는 '호야나무'라고 불린다. 호야는 충청도 사투리로 호롱불을 뜻한다. 순교자들을 '등불'로 여긴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해미읍성을 찾아 순교자들을 기렸다.

성 북쪽으로 올라가니 청허정과 소나무 군락지인 향토숲이 있었다. '맑고 욕심없이 다스리라'는 의미의 청허정에서 조선 병사들은 활을 쏘며 무예를 익혔다. 3ha의 송림인 향토숲에는 군센 적송이 뻗뻗했다. 충남의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이다. 북쪽 성벽 뒤에 해자가 있었다.

요즘 유적지는 때에 따라 표정이 다르다. 새벽에는 사색과 명상의 장이 되고, 한낮에는 활력이 넘치며, 부드러운 조명이 켜지는 야간에는 낭만이 흐른다. 해미성도 시간대별로 다채로운 분위기를 선사했다. 새벽의 해미는 부지런히 새 단장을 하고 있었다. 관리인들이 파란 잔디 위에서 시민들을 맞기 위해 새날을 준비하는 새벽 풍경은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다. 조명이 켜진 밤의 성곽은 오늘의 로미오와 줄리엣들에게 매혹의 밤을 제공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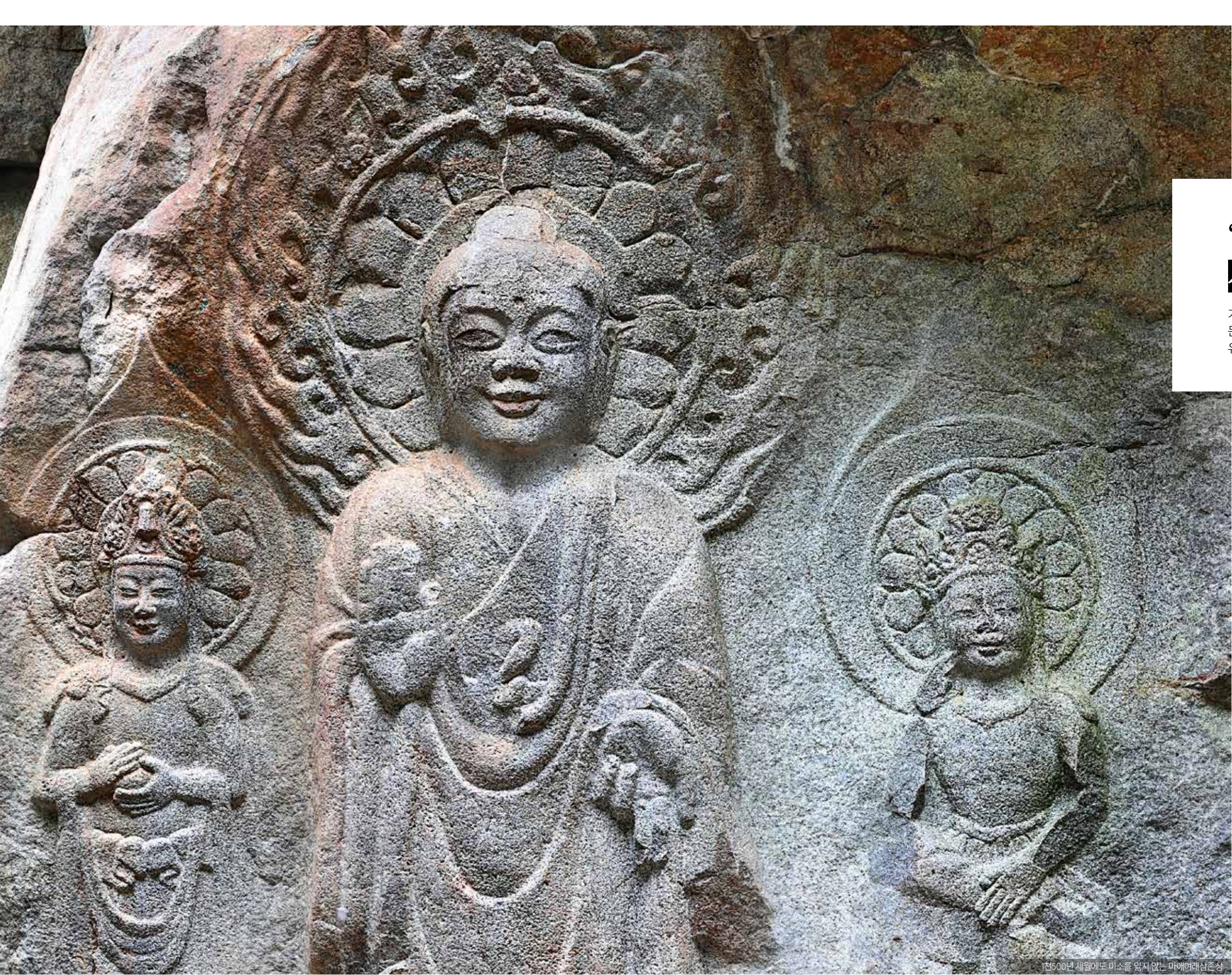


4

- 1 견고한 해미읍성 성곽
- 2 해미읍성 정문인 진남문
- 3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들을 고문하기 위해 매달았던 '호야나무'
- 4 해미읍성에 군관으로 근무했던 이순신 장군 목상
- 5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해미읍성 소나무 군락지



5



‘백제의 미소’ 서산마애여래삼존상

기적 같은 보존의 ‘대명사’ 서산마애석불. 1천500년의 문화유산 보존을 가능케 했던 건 한국인의 과학 유전자였을까, 인문적 역량이었을까.

돌에 새겨진 세 부처의 미소는 온화하고 은은하고 넉넉했다. 서산마애여래삼존상의 미소는 ‘백제의 미소’라고 불린다. 그만큼 보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더 신비로운 것은 빛의 방향,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미소가 다르게 보이고 표정이 바뀐다는 것이다. 아침 10시께 햇빛을 받은 얼굴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우리는 표정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오전 9시께와 햇빛이 짙은 오후 1시께, 두 번 방문했다. 그러나 범인이 부처의 미소와 표정 변화를 포착하기는 무리였다. 미려한 눈과 둔한 감수성을 탓하며 아쉬워할 수밖에 없었다.

‘마애’(磨崖)란 암벽에 조각했다는 뜻이다. 서산 가야산 용현계곡 입구 왼쪽 층암절벽에 새겨진 삼존불은 국내 마애불 중 가장 오래되고 조각미가 걸출하다. 1958년 발견됐고, 4년만인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삼존불은 가운데 여래입상, 오른쪽 보살입상, 왼쪽 반가사유상으로 추정되는 세 보살상으로 구성돼 있다. 여래입상이 현재를 상징하는 석가, 반가사유상이 미래 부처인 미륵, 오른쪽 입상이 과거불인 제화갈라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각 연대는 백제 후기로 추산된다. 반가사유상의



건대 통일신라, 고려 때 융성했다. 통일신라 때 화엄십찰 중 하나였으며, 한때 승려 1천여명이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다만 창건과 폐사 연대가 밝혀지지 않았다. 가야산 기슭에 위치한 절터는 한 눈으로 가늠하지 못할 만큼 넓었다. 절 건물은 없어졌지만 5층 석탑, 당간지주, 석조, 법인국사보승탑과 탑비가 광대한 터 여기저기 서 있었다. 이 문화재들은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다. 석조는 쌀을 씻거나 그릇 닦을 때 사용했다. 국내 남아 있는 석조 중 가장 크다.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백제 불상인 금동여래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불 중 가장 큰 고려철불좌상 등 이곳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이 국립중앙, 국립부여 박물관 등에 보관돼 있다.

1 긴 세월 마애여래삼존상을 지켜준 처마바위
2 마애여래삼존상으로 가는 계단 3, 4 백제 때 사찰인 보원사지 5층 석탑과 석조

코, 팔이 조금 부서진 것을 빼면 삼존불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 몸체와 배경 면의 조각선은 뚜렷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불상이 지나온 1천500여 년의 시간을 고려하면 보존 상태는 경이롭다. 잘 보존된 이유로 불상의 위치와 방향을 꼽는 전문가가 많다. 마애삼존불은 처마 역할을 하는 큰 바위 아래 있고, 조각 면이 80도 정도로 기울어져 비바람이 정면으로 들이치지 않는다. 용현계곡에서 불상까지 올라오는 길은 3~4번 꺾여 습기가 조각 면에 바로 와 닿지 않는다. 석공은 조각할 때 이런 과학적 요소까지 고려했을까.

백제의 미소를 길이 전하고 싶어서였으리라. 당국은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 1974년 보호각을 설치했다. 그러자 마애불에 백화현상이 생기고, 자연 채광에 의한 백제의 미소를 볼 수 없게 됐다. 결국 2006년 보호각을 32년 만에 해체했다. 지금은 관광객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줄과 CCTV만 설치해놓았다. 조각품에 흔히 보이는 손때조차 마애삼존불에는 거의 묻어있지 않았다. 석불은 용현계곡에서 불과 200m 정도 올라간 곳에 있다.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에서 마애불이 오랜동안 원형을 유지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마애불의 가치를 후대에 더 오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애불에서 용현계곡을 따라 약 2km를 더 가면 백제와 고려 시대를 품은 보원사 절터가 있다. 보원사는 백제 때 창



四

서산의 풍부한 볼거리

서산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의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품고 있다. 문화재들은 잘 보존됐다. 부여, 경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문화재의 '보고'다.



서산은 토양이 비옥하고 기후가 온난해 예부터 농산물, 해산물 등 먹거리와 물자가 넉넉했다. 중국과 가까운 태안반도에서 예산, 부여, 공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문물이 발달했다. 이 때문에 서산에는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다채롭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벚꽃이 피는 개심사에는 제석전도, 범천도, 사위보살도, 팔금강도 등 보물로 지정된 불화가 많다. 조선 시대 제작된 달마대사혈맥론 목판 7매, 달마대사관심론 목판 8매도 원형이 보존된 보물이다. 수덕사, 무량사, 마곡사와 함께 충남 4대 사찰인 개심사는 백제 의자왕 때(654년) 창건돼 고려 충정왕 때(1350년) 증수됐다. 대웅전 기단석은 백제 때 것이고, 휘어진 나무를 기둥으로 쓴 심검당은 단청을 하지 않아 깊은 맛을 느끼게 한다. 소박하고 작은 절이지만 불화, 대웅전, 심검당, 명부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보물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이 여럿이다.

청벚꽃은 꽃잎이 연둣빛이다. 개심사 청벚꽃은 학계에 보고된 청벚꽃으로는 국내 유일하다. 감염병이 돈 올해 봄에도 명부전 옆에 핀 청벚꽃을 보려는 불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봄이면 서산에는 한우목장에 피는 흙벚꽃을 시작으로, 상왕산 산벚꽃과 겹벚꽃, 개심사 왕벚꽃과 청벚꽃이 차례로 피어나 주민과 관광객을 황홀하게 한다. 우리를 반긴 건 명부전과 연못 옆에 붉게 꽃 핀

- 1 개심사 안양루에서 바라본 대웅보전
- 2 해강 김규진이 쓴 개심사 현판 '상왕산개심사'



1 굽은 나무 기둥이 일품인 개심사 범종각 2 국내 유일의 개심사 청벚꽃
3 간월암 입구의 작은 조각 정원 너머 갯벌이 넓다 4 간조 때 물이 빠진 간월암

철나무는 중심 줄기가 구불구불 휘어지고 상당 부분 고사한 것 같은데도 잎은 젊은 나무처럼 건실하고 열매에 윤기가 흘렀다. 성스러운 불심이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나 보다.

안전기념관도 빼놓을 수 없다. 서산 출신인 안견은 조선 초기 최고의 화가였다. 신라의 솔거, 고려의 이념과 함께 3대 화가로 꼽힌다. 안평대군에게서 꿈에 거닌 도원경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완성한 몽유도원도는 15세기 산수화의 걸작이다. 원본은 일본 덴리(天理) 대학에 있고, 국내에는 실물 크기의 영인본 2개가 국립중앙박물관과 안전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2009년 한국박물관 100년을 기념해 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특별전에서 원본이 전시됐었다. 당시 하루에만 1만명 이상이 줄을 서, 1인당 관람 시간이 30초로 제한됐다. 오로지 전시를 보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거나, 30초 관람을 위해 5~6시간 줄을 선 관람객이 적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감염병 사태로 잠정 폐쇄된 기념관에는 적벽도, 소상팔경도, 사시팔경도 등 안견의 대표작 모사품 18점이 전시돼 있다.

서산에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백제, 고려, 조선의 문화재가 다채롭다. 유산이 많기만 한 게 아니라 잘 보존됐다. 서산의 문화유산 보존 유전자(DNA)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 ⑦

배롱나무였다. 어여쁘기가 벚꽃 못지않았다. 조선 초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 간월암이라고 불리는 작은 절은 서산 9경 중 3경에 꼽힐 정도로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다. 간월암은 만조 때 섬이 되고, 간조 때 육지와 연결된다. 바닷길이 열리고 닫히는 곳이다. 정오쯤 간조가 되자 간월암 주위로 거대한 갯벌이 드러났다. 물때를 알고 왔는지 호미와 통을 들고 갯벌로 향하는 나들이객들이 적지 않았다. 갯벌에 사는 어패류를 캐기 위해서다. 사방이 바닷물로 가득 찬 오후 5시쯤 만조 때의 간월암은 운치를 더했다. 바닷물이 차올라 간월암으로 가는 길이 끊기자 여행객들은 발을 동동 거렸다. 간월암에는 수령 250년의 사철나무, 150년의 팽나무가 있다. 사

